

## 당신은 예배를 인도하도록 요청을 받았습니까?

### I. 글을 여는 말

매 주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에서 얼마나 다른 형태의 예배가 드러지게 되는지를 잠시 생각해 보라. 이러한 예배에서의 인도 형태는 매우 다르다. 어떤 인도자들은 예복을 입고 정밀하게 장식된 강단 뒤에 서있다. 어떤 인도자들은 청바지를 입고 전자음악 합성기 뒤에 앉아 있다. 어떤 사람들은 폭 넓은 신학 교육을 받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 어떤 사람들은 적은 양의 음악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차이점들은 각 교회들이 예배의 형태에 관하여 내리는 중요한 결정에서 비롯된다. 그런데 이러한 결정들은 극히 중요하며, 많은 질문들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이 소책자에서 그러한 질문들은 제기되지 않을 것이다. 대신 이 책자는 예배 형태와는 상관없이 예배 인도자들이 배울 수 있는 공통적인 교훈들에 관하여 언급할 것이다.

\*\*\*\*\*

당신은 예배를 인도하도록 부름을 받았는가? 만일 그렇다면 당신은 교회가 가장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를 하려고 모였을 때 맨 앞에 서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구약에서 예배의 인도는 레위인에게 할당된 일이었다. 초대 교회에서 집사들은 예배의 인도에서 교회의 장로 또는 감독을 도왔다. 교회 역사를 통하여 수 천명의 목사들이 교회의 예배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겼다. 예배 인도자로서 섬김으로써 당신은 이 사역으로 부름을 받은 많은 사람들의 대열에 끼게 된 것이다.

아마도 당신은 이 분야에 경험이나 훈련이 없는데도 예배를 인도하도록 요청 받았을 수도 있다. 또는 목회자로서 수년간의 경험이 있으나 당신의 기술을 발전시키기 원할 수도 있다. 아마도 당신은 병원이나 감옥에서, 또는 대학 캠퍼스나 양로원에서, 또는 소그룹 모임에서, 또는 전 교인을 위해서 예배를 인도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아마도 음악가이거나 연극 연출가일지 모른다. 안수를 받지 않았거나 또는 안수를 받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신의 상황이 어떠하던지 간에 이 소책자는 당신이 이 중요한 책임을 이루도록 당신을 도울 안목과 전략을 제공하고 있다. 물론 당신이 교인들 앞에 나서기 이전에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야 할 많은 분량의 일이 있지만, 이 책자는 예배가 이미 당신 또는 다른 사람에 의하여 계획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만일 당신이 계획 과정에 관한 내용에 관심이 있다면, CRC 출판부에서 나온 “당신은 예배를 계획하도록 요청을 받았습니까?” 라는 소책자를 참고로 하라.

\*\*\*\*\*

### II. 돕는 자로서의 예배 인도자

첫째로 당신은 당신의 역할에 관하여 분명해야 한다. 어떠한 예배 인도자라도 (음악가, 설교자, 연극 연출자, 예술가, 또는 다른 연결자) 그 주요 역할은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돕는 자로서 섬기는 일이다. 교회의 예배는 공적이고 연합적인 행사로서, 예배 인도자의 임무는 모인 공동체 전체가 예배에 참가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임무는 예배의 흐름에 관한 방향을 제시하고, 예배에 합당한 태도의 본을 보이고, 모든 기술과 절차를 넘어서 예배의 의미와 목적을 향하여 주의를 환기시키는 일 등을 포함한다.

만일 당신이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했다면, 당신의 교인들은 당신에게 집중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대신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로서 자신들의 행위를 예배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 “사도들의 율례” (Constitutions of the Holy Apostles)라는 이름의 4세기 문서는 예배 인도자들을 위한 다음과 같은 좋은 가르침을 제시하고 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사람, 변화시키는 사람, 가르치기를 잘하며, 악을 참아내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격려와 위로를 잘 하는 사람이 되라.” 이 고대 교회문서는 이와 같은 가르침을 제시한 후에야 비로소 기술적인 면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교회의 모임이 있을 때, 당신은 마치 큰 배의 사령관과도 같다. 집사들로 하여금 선원같이 교인들을 위하여 모든 적절한 관심과 품위로서 장소를 준비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가능한 기술을 동원해서 일이 되게 하라.”

이러한 가르침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환대(hospitality)를 예배 지도자의 핵심 덕목 중의 하나로 지적하고 있다. 예배 인도자로서 섬기는 것은 잔치에서 주최자로서 섬기는 것과 같다. 그 목적은 예배의 잔치가 진행되는 동안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인도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의 공동체로서 서로 연결됨을 느끼고, 예배의 모든 방면에 완전히 참여하도록 돕는 것이다.

우리를 공연자들로부터 구원하소서!

그런데 예배를 돕는 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몇 가지의 유혹이 있다. 그 중 하나는 우리 자신들을 공연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일, 즉 공연 예술가 중에서 자신의 역할의 본보기를 찾으려는 생각이다. 그러나 공연하는 사람은 수동적인 청중을 향하여 일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교인들이 무언가를 능동적으로 하도록 돕는 일이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음악이 굉장한데요!" 또는 "멋진 설교였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원해서는 안될 것이다. 오히려 우리는 그들이 "나는 무슨 말로 감사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당신은 나로 하여금 보다 깊은 기도를 드리도록 도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바라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보다 능동적으로 예배에 참가할 때 우리는 우리의 임무를 이행한 것이다. 북미주의 문화 가운데서 교회들은 그들의 목회자, 음악가, 그리고 예배 인도자들을 유명인사로 만들려는 유혹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소위 “전통적” 이거나 “최신” 의 예배 형태 모두에게 해당된다. 그러나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러한 유혹을 물리쳐야 한다.

우리를 조작하는 사람으로부터 구원하소서!

두 번째의 유혹은 사람들을 조작하여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만들려는 것이다. 어떤 예배 인도자는 (좋은 이유에서) 보다 많은 참여를 권장하지만, 문제는 잘못된 방법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데 있다. 그들은 영적 체험을 만들어내려고 하거나, 교인들이 더 잘하지 않는다고 꾸짖거나, 의도적으로 교인들의 반응을 이끌어 내려고 예배의 감정적인 강도를 과장하기도 한다. 그들은 너무나도 예배 자체에 빠져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감동을 받기도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싫증을 느끼게 만든다. 얼마 전에 필자는 어떤 목회자로부터 예배 인도자를 찾는 일에 대한 조언을 전화로 부탁 받았다. 나는 그 때 “어떤 면을 추구하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이에 대한 답은 (그 의미가 결코 단순하지 않은 표현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 하도록 만들 수 있는 사람” 이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표현들이 예배 인도자를 찾는 광고란에 점점 더 나타나고 있다. 많은 교회들이 창의력, 개인 간증, 그리고 카리스마적인 개성을 가지고 평범한 시간을 거룩한 순간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다. 물론 거룩한 순간들에 참여하고자 하는 우리의 관심사는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제아무리 카리스마적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자신의 창의력과 재주로 거룩한 순간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 아무도 없다.

루터 대학(Luther College)의 예배실과 음악관 봉헌식에서 노벨(Westin Nobel)은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전에 계시지 않는다” 라는, 즉 하나님의 임재는 선물로서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상기시키는 바울 서신의 구절에 근거한 찬송을 선택했다. 예배 인도자의 주요 임무는 영적 체험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그 임무는 성난 교사와도 같이 꾸짖는 것이나, 연기자나 같이 즐겁게 하거나, 또는 해박한 교수와 같이 강의하는 것이 아니다. 예배 인도자로서의 임무는 모임의 주최자와도 같다. 우리의 소명은 예배의 잔치에 온 손님들을 환영하는 것이다!

### III. 전략과 기술

아래에서 우리는 예배를 인도할 때 사용하는 몇 가지 기술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제안의 의도는 그 임무를 불필요하도록 복잡하게 만들지 않으려는 것으로서, 당신이 모든 가능한 기술을 배워서 예배 참석자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되라는 것에 그 요점이 있다.

#### a. 예배 전

##### 1. 기도하라.

모든 예배 인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요구는 그들 자신이 예배를 드리는 시림이 되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준비의 첫째 단계는 기도이다. 당신의 지도 역할을 위한 지혜와 상상력을 위하여 기도하라. 당신이 인도하려고 하는 예배 전체를 통하여 성령께서 임재 하도록 기도하라. 이러한 종류의 기도는 예배의 능력이 당신의 말이나 개성에 달리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예배에서 발견되는 능력은 성령의 역사이다. 아래의 두 기도는 당신이 예배를 인도하기 위하여 준비할 때 그대로 또는 필요에 맞도록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다.

“ 언제나 살아 계신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말 할 것이 없습니다. 당신의 영이 아니면 우리는 무기력하기만 합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성령을 주사 당신의 백성들을 기도로 인도하며, 복음을 선포하며, 당신의 이름을 감사히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Book of Common Worship 에서

“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심장을 당신께로 이끄시고,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상상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의지를 지배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당신의 것이 되게 하시고, 당신에게 전적으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당신의 백성의 잘됨을 위해서. 우리 주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템플 (William Temple)

2. 당신이 계획하고 있는 예배를 사전에 진행해보라.

예배 전체를 진행해보라. 찬양을 부르고, 성경의 가르침을 읽고, 묵회 기도를 하라. 그럴 때 특별히 가슴에 와 닿고 강조할 필요가 있는 어떤 구절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준비는 예배의 각 요소들을 당신에게 더욱 의미 있게 만들 것이며, 또한 당신을 통하여 교인들에게 더욱 의미 있게 제시될 것이다.

3. 공중기도를 준비하라.

기도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한다는 것은 엄청난 책임이다. 공중 예배에서의 인도자의 말들은 공동체 전체의 말이 되기 때문이다. 기도를 준비하면서 참으로 공동체 전체의 기도가 되는 찬양과 간구의 시기를 생각해보라. 일인칭 복수(“ 제가 기도합니다” 대신 “ 저희가 기도합니다” )를 사용하라. 통상적인 표현이나 진부한 표현(예를 들면, “ 오 하나님, 그녀와 함께 하옵소서.” )의 사용을 피하라. 교인 중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라. 즉흥적으로 기도할지라도 예배 때 당신이 인도할 모든 기도의 요약 글로 써보라.(이에 관하여 좀 더 많은 도움을 위해서는 “ 당신은 기도를 인도하도록 요청을 받았습니까?” 를 참고하라.)

4. 전환하는 시기에 대한 언급을 준비하라.

예배 인도자들은 예배를 통하여 교인들을 이끌어간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많은 예배 인도자들은 자신들이 사용할 말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너무 계획된 것이나 “ 짜여진 일” 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거절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미리 선택하는 것에 대하여 전혀 생각조차 해보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말은 사람들의 힘을 북돋아 주거나 그들을 좌절 시키거나 한다. 그들은 방문자들로 하여금 환영 받는다고 느끼게 하든지 그렇게 못하든지 할 수 있다. 그들은 교인들로 하여금 예배의 목적에 초점을 맞추도록 인도하든지, 또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배의 절차 진행 그 자체에만 사로잡히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리는 종종 부정확하고, 위험하며, 또는 아픔을 주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다. 다음의 말들은 실제로 예배 인도자들에 의하여 언급된 말들이다:

“ 남성과 여성이 첫째 줄을 함께 부르고, 남성은 어린이들과 함께 둘째 줄을 부르고, 여성은 첫째와 셋째 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는 모든 사람이 함께 그것을 부름으로 끝내겠습니다.”

“ 에... 나는 지금 우리가 죄에 대한 고백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우리가 이걸 연습하지는 못했지만...에이, 뭐... 그냥...”

“ 이제...다음이 뭐죠... 에...다음으로 우리는 신조를 고백하겠습니다...”

“ 이게 전통적인 예배보다 더 재미있지 않아요?”

“ 이 노래 참 좋지 않아요? 그러나 길 건너 있는 교회는 이렇게 부르질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 에...우리 사무원이 또 일을 망쳤군요...주보 이편에 있는 노래의 번호는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예배 인도자들은 종종 그들이 의도한 것과는 매우 다른 것을 말하기도 한다. 그들은 전적으로 혼동되는 것을 말하기도 하며, 예배가 틀에 박힌 것이라는 인상을 주기도 한다. 그들은 다른 교회를 조롱하며, 예배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신호를 보내기도 한다. 그리고 때로는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다른 사람 탓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말들 중 어떤 것도 실제로 일어나는 일의 의미나 목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이것들은 예배를 가능하게 하기보다는 예배의 장애물이다.

이런 실수를 피하기 위하여 다음의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라: 예배의 절차와 진행에 대한 나의 설명은 가능한 한 간결하고 명확한가? 예배의 전환은 둘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보여주면서 두 개의 예배 행위를 연결시키고 있는가? 이러한 전환에서 나는 너무 아는 체 하거나 설교를 하듯 하지 않는가? 전환을 알리는 억양은 온화하고 마음을 끄는 것인가, 아니면 차갑고 불편하게 하는 것인가? 노래나 찬송에 특별히 내가 가르침에 강조해야 할 가슴에 와 닿는 구절이 있는가? 잘 계획된 전환의 예로서 다음의 것들을 생각해보라:

“ 우리 중 어떤 사람들은 큰 기쁨으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슬픔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를 첫 찬양은 기쁨과 함께 우리의 아픔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시편에 근거한 것입니다.”

“ 그 다음에 우리는 사도신경의 말들을 이용하여 우리가 믿는 바를 정확하게 표현하겠습니다. 이 말들은 여러분이 가진 주보에 인쇄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우리는 이 고백으로 인하여 우리가 가진 기쁨을 설명해드리기 원합니다. 예배를 마치신 후 문에서 맞이하는 분 아무에게나 자유롭게 문의하십시오.”

“ 설교는 죄에 대한 고백의 초청으로 끝났습니다. 우리의 응답의 노래는 우리로 하여금 바로 그것을 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당신이 예배 중에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를 (예배 때 당신이 쓴 그것을 언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미리 글로 써보도록 하라. 그리고 예배가 끝난 후에 당신이 말한 것을 녹음한 내용을 들어보라. 당신 교회의 다른 예배 인도자들로 하여금 당신이 다른 순서로 전환할 때 보다 남에 대한 배려가 있도록 발전시킬 방법을 찾도록 하라.

#### 5. 성경 낭독을 연습하라.

성경 낭독은 공중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 중 하나지만, 종종 그 준비가 가장 적게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경박하거나 준비가 되지 않은 성경 낭독은 우리가 성경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다. 읽을 성경이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서 끝나는지 확실히 알아놓도록 하라. 당신이 복잡한 문장들의 의미를 최대한으로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어떻게 그런 문장들을 읽을 것인지 생각해보라. 본문에 나오는 어려운 이름들을 제대로 발음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라. 본문의 의미와 그 정신 모두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라. 예를 들면 애통이 나오는 시편과 비유를 읽는 소리는 달라야 하는 것이다! 성경을 읽기 전과 읽고 나서 잠깐동안 경건한 침묵을 갖도록 하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소리를 내서 읽도록 하라. 도움이 더 필요하다면 ” 당신은 성경을 읽도록 요청을 받았습니까?” 를 참고하라.

#### 6. 새로 온 사람들을 고려하라.

당신이 처음으로 교인들과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상상해보도록 하라. 예배의 어떤 부분들이 방문자에게는 이해될 수 없는 것인가? 어떤 지시들이 따르기 힘든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새로 온 사람들이 어떤 책을 참고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가? 사람들이 찬송가, 예배 지침서, 또는 성경의 어떤 페이지를 찾을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고 있는가?

#### 7. 적절한 복장을 선택하라.

예배를 위하여 옷을 입을 때는 다른 사람들의 주의를 분산시키거나 그 자체에 관심을 끄는 것이 아닌 옷을 선택하라.

#### 8. 음향시설을 점검하라.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모든 음향 기구들을 이중으로 점검하라. 어떤 지혜로운 음향 기술자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더 많은 기구들을 가질수록 문제와 주의가 산만해질 가능성은 더 커진다. 이러한 산만함을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나의 임무다.” 예배 인도자들은 사용될 모든 기구들의 소리를 미리 들어봄으로 도울 수 있다. 또한 마이크를 사용할 때에 너무 가까이 있거나 너무 멀리 있지 않도록 하라.

#### 9. 다른 참석자들과 의논하라.

우선 모두가 예배의 내용과 목적을 이해하는가 점검하라. 그리고 나서 기술적인 면을 점검하여 각자가 언제, 어디서, 그리고 어떻게 참석해야 하는 것을 알도록 하라. 다른 참석자들과 예배보다 훨씬 전에 대화를 걸거나 만나게 되면 오해를 해결하거나 힘든 준비를 피할 수 있다.

#### 10. 혼동이 되는 지시를 간략하게 만들라.

어떤 때 예배 인도자들은 예배의 과정을 필요 없이 복잡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찬송가의 절수를 흘려 놓는 것은(가령, “우리는 1, 4, 6, 그리고 7절을 부르겠습니다.”) 찬송의 시적 표현을 파괴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어느 절을 불러야 할지를 걱정하게 만든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찬송 전체를 부른다고 해서 예배에 많은 시간이 추가되지도 않는다. 그리고 만일 찬송이 너무 길면, 그 찬송 중 계속된 일부를 부름으로써(예를 들면 “오늘 우리는 첫 4절과 마지막 4절을 부르겠습니다.”) 그 과정을 단순하게 만들 수 있다.

#### 11. 당신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계획하라.

언제 서고 언제 앉을 것이며, 예배 도중 어디를 걸을 것인지를 미리 생각하라. 처음으로 예배 인도를 하게 된 어떤 사람은 이러한 준비를 하지 않아서 막상 예배 때에 당황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교인들이 자신을 따라서 자신이 앉을 때 함께 앉고, 설 때 서고, 찬송을 부르기 전에 다시 일어났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정직한 실수에 대해서 당신 자신을 너무 심하게 질책하지 않도록 하라. 그러나 이와 동시에 불필요한 방해물을 제거하는 것은 교인들에게 선물이 될 수 있다. 예배의 행위를 보충해서 도울 수 있는 움직임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라. 예를 들면 어떤 교회에서는 예배 인도자가 세례를 받는 곳에서 고백의 기도와 용서의 확신을 인도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회개와 은혜가 우리의 세례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려주게 된다. 이렇게 당신의 움직임조차도 예배의 의미에 공헌할 수 있는 것이다.

#### b. 예배 도중

아래의 많은 부분들은 고등학교에서의 연설 준비를 연상시킬지도 모른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제안 중에 어떤 것은 불분명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요점은 이러한 제안들을 너무 복잡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며, 모든 가능한 자료들을 이용하여(심지어는 고등학교에서의 연설준비를 이용해서라도) 당신이 보다 나은 인도자가 되도록 도우려는 것이다.

## 1. 몸짓과 자세

사려 깊은 몸짓은 교인들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큰 자산이 된다. 예를 들면, 벌린 손이나 벌린 팔은 친근함을 전달하며, 움킨 손이나 손가락질은 종종 사람들로 하여금 물러나거나 마음을 닫아버리게 만든다. 고개를 숙인 자세는 예배를 지나치게 무관심하게 대하는 듯이 보이며, 꺾꽂이 편 자세는 모든 사람들을 긴장하게 만든다. 초조한 듯이 무릎을 흔드는 것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대신, 느긋하고 침착한 자세는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준다. 당신의 몸짓을 당신이 하고 있는 일 자체와 청중의 기대에 맞추도록 하라. 다음 세 개의 몸짓을 생각해보도록 하라:

??"자리에 앉으십시오." : 팔을 곧장 피고 얼굴을 찡그리면서 말하기보다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아래쪽으로의 손짓으로

??" 일어서십시오." : 딱딱한 명령조의 손짓보다는 부드럽고 청하는 듯하게 손을 위로 움직이며

??" 기도하십시오." : 손을 엉덩이에 대거나 호주머니에 넣는 것보다는 양손을 벌리고서

물론 모든 자세가 예배 전에 계획될 수는 없다. 몸짓과 자세는 자연스럽게 느껴져야 하며, 짜여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주 사용하는 몸짓 한 두 개 정도는 계획하도록 하라.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것들은 습관이 될 것이다.

## 2. 태도

예배 인도자의 태도는 말보다 더 크게 전달된다. 가장 좋은 예배 인도자는 따뜻하지만 경박하지 않고, 경건스럽지만 엄숙하지 않고, 열정적이지만 절제하는 사람이다. 무관심, 교만, 그리고 게으름은 모두다 장애물을 제공하며, 성실함, 깊은 기쁨, 그리고 열정적인 활력 모두는 힘이 나게 한다.

## 3. 예배의 속도(pacing)

예배는 서두르는 듯 하거나 힘든 것 같이 느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배에서의 적절한 보조는 예배에 엄청나게 공헌할 수 있는 무형의 것들 중 하나이다. 너무 빨리 움직이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해야 하지만, 너무 느려서 예배 참석자들이 불안해 하거나 불편해 하든지, 또는 지루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예배에서의 모든 부분이 같은 보조를 요구하지는 않으며, 신나는 찬양들은 끊이지 않고 계속 빠르게 연결될 수 있다. 그러나 교인 중 어느 사람의 죽음을 알리는 광고 등은 사람들의 감정이 반응할 여유를 주기 위하여 그 앞과 뒤에 (비록 잠깐동안이라도) 침묵이 요구된다.

정확한 예배의 속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는 힘들다. 이것은 기술보다는 본능에 가까운 것이다. 그러나 예배 인도자는 이러한 본능을 개발해야 한다.



#### 4. 발음과 억양

예배 인도자는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명확하고 천천히 말해야 한다.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의사를 전달하려는 듯이 하라. 당신의 억양은 활기에 차고 예배의 순간 순간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가령 시편 150편을 단조로운 목소리로 읽는 것은 그 본문의 의미와 모순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와는 반대로 기쁨에 찬 목소리로 이 시편을 읽을 때는 그 본문의 말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다.

#### 5. 교인들과 눈길의 접촉을 유지하라.

눈길의 접촉은 가장 좋은 형태의 초청이다. 특별히 중요하거나 날카로운 진술을 할 때 당신의 머리를 노트로부터 드는 것은 당신이 말하고자 하는 점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준다. 눈길의 접촉은 예배 인도자가 보여주고자 하는 따스함과 활력을 전달할 수 있게 만든다.

얼굴의 표정은 정직해야 하며, 예배 당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반영해야 한다.

애통의 시편을 읽으면서 웃는다든지,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얼굴을 찡그리는 것은 메시지와 모순되는 것을 시청각으로 전달해준다. 예배 인도자의 가장된 웃음보다 예배 참석자들의 관심을 더 빨리 없애는 것은 아무 것도 없음을 기억하라.

#### 6. 한 목소리로의 기도를 돕는 방법

어떤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예를 들면 죄 고백의 기도 같은 기도문을 함께 읽기도 한다. 이럴 때 이러한 고백의 기도가 잘 알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면, 교인들이 그것을 크게 읽기 전에 조용히 읽어보도록 준비시키는 것은 매우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실제로 그것을 함께 읽게 될 때, 그들은 단순히 틀리지 않고 읽으려는 태도 대신에 자신들이 말로 하는 내용을 참으로 자신의 것으로 의미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에 있어서 각각의 사람마다 다른 종류의 충고가 필요하게 된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목소리에 좀 더 힘있는 억양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들은 좀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사람들은 좀 더 정력적이 되어야 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절제가 필요하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참여가 청중에게 보다 강력한 인상을 주도록 해야 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좀 제한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미소가 필요하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너무 미소를 지어서 그것이 거짓으로까지 보인다. 우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참석하게 하기를 원하므로, 우리의 개성에 적합한 기술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지혜로운 지도자나 절친한 친구를 발견하는 것이 가장 좋다.

#### c. 예배 후

##### 1. 감사와 비판을 잘 받아들여라.

사람들이 예배에 관하여 하는 말들은 당신으로 하여금 보다 더 좋은 예배 인도자가 되도록 도울 것이다. 당신이 저지른 고의가 아닌 실수들에 대하여 너무 염려하지 말라. 당신이 얼마나 잘했는가 또는 잘못했는가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 예배의 의미와 목적에 초점을 맞추어서 평가하도록 하라.

## 2. 예배를 되돌아 보라.

예배 다음 날쯤 해서 녹음테이프를 들으면서 예배를 되돌아 보라. 예배의 강점과 약점 모두를 확인하라. 당신이 말한 전환을 위한 말들을 듣고 어떻게 보다 명확하고 친근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가를 살펴보라. 교인 중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저로 하여금 보다 나은 예배 인도자가 되도록 도와 주시겠습니까?” 라고 요청하라.

## IV. 자주 제기되는 질문들

질문 : 계획한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하는가? 즉흥적인 것을 할 수 있는가?

때때로 즉흥적인 행동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가령, 어떤 간증이 너무나도 감동적인 것이어서 계획되었던 “오, 주여,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합니까?” (How Long, O Lord, How Long?)를 부르는 것이 전혀 어울리지 않게 되었을 때라든지,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예배 직전에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때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이 진행하는 것은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때의 열쇠는 당황하지 않는 것이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믿음으로 가장 적절하게 해야 할 반응은 어떤 것인가?” 및 “이 시간에 교인들이 가진 필요를 어떻게 예배가 채워줄 수 있는가?” 라고 당신 자신에게 질문하라. 또한 관련된 모든 사람이 함께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이 즉흥적으로 새 음악을 고른다면, 반주자가 그것을 칠 수 있는가 확인하라. 종종 오랜 기간동안 익숙해진 말과 음악은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고, 특별히 성경에서 직접 끄집어 낸 말들은 더욱 그러하다. 무엇을 골라야 할지 모를 때, 시편을 살펴 보라.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모든 종류의 인간 감정이 표현되어 있다.

거의 모든 교회가 예배 도중에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교인 중 노인의 죽음 같은 위기나 슬픔의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어떤 예배 인도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모르며, 어떤 인도자들은 아무런 일도 없었던 듯이 예배를 진행해 가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때는 매우 중요한 순간이다. 당신이 갑작스러운 슬픔이나 위기에 어떻게 반응할까 상상해보라. 이 문제를 당신 교회의 예배 위원회와 상의해보도록 하라.

질문 : 만일 어떤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광고사항을 건네주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배에서 그 광고를 할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인가 생각해보라. 응급 사항들은 가능한 한 빨리 광고하도록 하라. 기도요청은 기도 시간 바로 전에 광고하라. 어떤 교인들을

도와주어야 할 내용의 광고는 헌금과 연관해서나 또는 예배가 끝나기 직전에 하라. 광고가 필요하지 않은 것은 광고하지 말라. 목적은 예배로부터 사람들의 관심을 분산시키지 않고 광고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질문 : 예배의 순서 중 안수를 받은 목사만이 인도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어떤 교회들은 예배에서 반드시 목사에 의해서만 되어져야 하는 것들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많은 교회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은 안수를 받은 목회자들만 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예배 시작에서의 환영, 설교, 세례와 성찬의 집례 및 축도. 그리고 평신도 예배 인도자들은 음악을 인도하고, 기도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간증을 하고, 교인에게 광고를 하며, 신조 및 헌금 등 예배의 다른 부분들을 인도한다.

또한 “규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보다는 이러한 설명 배후에 있는 생각들을 분별하도록 하라. 이러한 지침은 “이 교회에 영적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예배에서 그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가?” 및 “우리의 예배가 목회자 뿐만이 아니라 전 교인에 의하여 드러진다는 사실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가?” 등의 질문에 답하려는 데 그 요점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배는 목회자가 교회에서 발휘하는 지도자의 역할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로 교인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안수를 받았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모든 신자의 제사장 됨”의 가르침은 많은 사람들이 관여하는 일이 적절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므로 어떤 교회에서든 예배를 통한 지도의 형태는 이 두 가지 관심사를 모두 반영해야 한다. 그리고 어떤 경우든지 예배 인도자는 영적으로 성숙하고 그 직무에 맞는 사람이어야 한다.

질문 : 우리 교회에서는 많은 지도자들이 예배 때에 유머를 사용한다. 이것은 적절한 것인가?

유머는 불과 같아서 생명과 활력을 더할 수도 있고, 파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유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유머는 의도하지 않은 당황스러운 순간을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며, 웃음은 간증이나 이야기에 진정한 기쁨을 갖는 표식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형태의 웃음은 어떤 글을 읽을 때나 설교 예화, 특별히 아이러니로 가득 찬 예화 뒤에 오히려 합당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할 것은 유머가 다른 사람이나 다른 교회에 해를 가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밤늦게 TV에서 하는 대부분의 농담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면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이런 것은 교회에서 사용될 수 있는 농담이 아니다. “이러 이러한 교회에서는 이 노래를 그렇게 잘 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식의 말(실제로 필자가 참석했던 예배에서 언급된 말)은 사람들을 웃길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를 손상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한 유머는 자연스러워야 하며, 억지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예배 인도자는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하도록 재미있게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결국 예배의 행위보다 예배 인도자에게 사람들의 관심을

더 집중시키는 커다란 함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종류의 유머는 저녁 식사 후 등어나 하기로 하자.

질문 : 우리 교회의 예배 인도자들은 너무 격식을 차린다. 나는 이것이 조금 풀어졌으면 하는데, 무슨 조언이 있는가?

먼저 “ 격식을 차리는 ” 것과 “ 차가운 ” 또는 “ 천편일률적인 ” 이라는 표현들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배에서 우리는 온화함과 참된 기쁨을 전달하기 원하지, 경박함을 전달하기 원치 않는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 “ 풀어진다 ” 는 것은 어느 정도 경박한 것으로 들릴 수도 있다. 그러므로 당신의 말, 몸짓 및 태도가 일상적인 것일 수도 있을 행동에게 어떻게 하면 따스함을 전달하고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 생각해보라.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참된 미소의 힘과 청중과의 눈길의 접촉, 그리고 사려 깊은 격려의 말이 가진 힘을 기억하라. 이러한 도구들은 격식을 차리는 예배라도 친근한 것이 되게 만들 수 있다.

질문 : 우리 교회의 예배 인도자들은 너무 격식이 없다. 나는 우리의 예배에 좀 경건미를 첨가하고 싶다. 무슨 조언이 있는가?

침묵의 힘을 기억함으로 시작하라. 기도를 시작하거나 끝맺을 때 또는 성경낭독을 시작하기 전의 침묵은 경외감을 전달해준다. 또한 당신이 사용하는 서론의 말을 주의 깊게 살펴보라. 서론의 말을 따듯하지만 부주의하거나 경박하지 않은 문구로 표현할 길을 모색하라. 만일 당신이 노래나 기도를 시작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말이 조심스럽게 깊은 생각에서 선택되었다면, 당신은 따스함을 전달할 수 있다.

질문 : 나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실수를 잘한다. 잘못된 찬송을 광고하기도 했고, 꽃병을 넘어뜨리 기도 했으며, 심지어는 성찬상의 포도주까지도 옆질렀다. 도와달라!

기술적인 면은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님을 기억하라. 기술적인 면은 찬양, 고백, 중보기도, 말씀선포, 헌금 등의 행위를 돕는 역할만을 위한 것이다. 동시에 예배의 자세한 부분을 살피는 것은 도움을 준다. 대부분의 실수는 리더가 미리 이 모든 것을 자세히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게 된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도움이 되는 한 가지의 연습은 예배 전체를 미리 준비해서 친근함을 나타낼 세밀한 부분에 관심을 기울이는 일이다. 예를 들면, 어떤 예배 인도자는 그 다음날 있을 모든 것을 진행하고 말로 표현해보기 위하여 토요일 저녁에 예배 장소에 간다.

물론 당신의 마음이 아직도 멍해지거나, 소개하고자 하는 어떤 사람의 이름을 잊어버린다거나, 갑자기 전기가 나가는 일도 있을 것이다. 이런 때에는 “ 좋은 예배 ” 란 “ 기술적으로 바른 예배 ” 와 같은 것이 아님을 기억하라.

질문 : 이것은 너무 따지는 것 아닌가?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별로 따지지 않고 예배를 인도한다.

이 소책자에서 비교적 많은 세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예배 인도를 너무 걱정스러운 일로 만들어서 기술적인 부분에만 집중하게 하려는 것은 필자의 의도가 아니다. 마치 자신의 일을 바로 하기 위하여 모든 바른 도구들을 가지기 원하는 자동차 기술자와도 같이, 중요한 것은 가능한 모든 자료를 이용해서 우리 자신을 보다 나은 예배 인도자로 만들려는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따라서 예배는 자연스러워야 하지만, 결코 부주의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지나치게 까다로움과 무관심 모두를 피해야 할 것이다.

## V. 결론

예배를 인도하는 것은 커다란 특권이다. 우리는 예배 인도를 준비하면서 노래 가사, 기도, 그리고 낭독할 성경 본문이 가진 완전한 의미를 섭취할 수 있다. 예배를 인도하면서 우리는 또한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얼굴을 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성령께서는 당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을 위한 친근한 예배 인도자로 만들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역할이 당신에게 큰 기쁨을 주기 바란다.

## 참고 자료

G. Robert Jacks, *Getting the Word Across: Speech Communication for Pastors and Lay Leaders*. Eerdmans, 1995.

Charles D. Hackett and Don E. Saliers, *The Lord Be With You: A Visual Handbook for Presiding in Christian Worship*. OSL Publications, 1990.

William Willimon, *Preaching and Leading Worship*. Westminster Press, 1984.

*Reformed Worship* (구독하거나 이전 호를 얻으려면 1-800-333-8300으로 전화)에 게재된 글들.